

발간사

국가가 1976년 설립한 ETRI는 지난 45년간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ETRI 연구진은 우리나라를 ICT 강국과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부상시키고 국가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ETRI 45년사는 저희가 지나온 발자취이자 흔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ICT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ETRI와 역사를 함께 해주신 자랑스러운 동문과 동료 그리고 저희 성장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TRI는 과거 45년 동안 이룬 연구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 지능화 종합 연구기관'으로 미래상을 정립하고 완전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ETRI는 지난 45년의 저력을 바탕으로 기술 선구자(First Mover)로서 새로운 시대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가 지능화를 통해 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ETRI가 주도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습니다.

ETRI 45년사는 연구개발사로서 전 직원이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성과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대분류 6개, 중분류 30개, 소분류 242개로 연구개발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ETRI 임직원이 대한민국 ICT를 일궈온 생생한 흔적들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사는 국문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발간해 전 세계 ICT강국을 꿈꾸는 후배 나라에도 배포하여 ETRI의 비결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룩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ETRI는 이제 인간중심 가치(humanity)를 만드는 미래기술 개발과 창의 연구에 도전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쪼록 45년사 편찬을 위해 애쓰신 전임 원장님, 선배님, 임직원들과 편찬위원회 위원장과 편찬위원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드립니다. ETRI가 45년을 넘어 50년, 10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연구기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명준

